

## • 지난 모심 사랑의 편지 당선작 (1) •

사랑하는 우리 엄마 류여사님께

엄마, 나 셋째딸 소영이.

얼굴 마주 보다가 이렇게 편지로 말을 하려니 너무 쑥스럽네. 홀어머니 외아들이in  
아빠한테 스무살 때 시집와서 한 성격하는 할머니 모시고 30년 넘게 살면서 엄마가  
참 많이 고생하고 산 거 알고 있어요. 거기다 두 분 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7년 동안  
아빠 간병하고 2년 동안 할머니 간병하면서 직장 다니고 집안 일 했던 엄마가 정말  
대단한 거 같아. 나 같음 그렇게 구박했던 할머니 미워서라도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 
같은데 매일 퇴근하고 죽 끓여서 할머니 계신 병원에 갖다드리고 씻겨드리고 오고..

주위에서도 다 대단하다고 했었지. 그러다가 아빠가 큰언니 결혼하고 3일 있다가  
갑자기 돌아가시고, 할머니도 아빠 돌아가신 다음날 돌아가셔서 두 분 장례 치루고  
했던 그 때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었지.

언니들은 결혼하고 멀리 있어 같이 살던 내가 힘이 되어주었어야 했는데 그 때 내가  
너무 철이 없었던 거 같아. 현실을 벗어나고 피하고 싶었어. 엄마가 나를 많이  
의지했다는 걸 아는데 내가 감당하기 버거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냈던 거 같아.  
그 때가 벌써 9년 전이다... 엄마도 벌써 환갑이 되었고, 요즘 들어 계속 아프다고 하고  
병원을 가도 잘 낫지도 않아서 마음이 많이 쓰여. 동생이 같이 있긴 하지만 아빠 없이  
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. 주말부부라서 평일에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내가 결혼하고  
나서부터 전보다는 자주 못 봐서 좀 그렇네.

결혼 준비하면서 또 결혼하면서 서로 많이 싸우고 서운함도 많이 쌓이고 엄마가  
나한테 서운한 게 많은 것도 알고 있어. 그래도 우린 아침에 싸워도 저녁이면 푸는  
엄마랑 딸이니까 금방 또 풀리겠지?

내 성격이 무뚝뚝하고 말도 툭툭 던지고 짜증도 많이 내서 미안해. 엄마가 제일  
편하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하면 좋은 말을 못 했던 거 같아. 엄마 성격이 어려서 그런  
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안 고쳐지네.

미안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노력할게요.

어릴 때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고, 비오는 날은 항상  
학교 밖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엄마가 기억에 많이 남아. 지금도 네 명 딸들  
뒤치다꺼리 한다고 힘들어하는데^^

난 다음에 내 딸에게 엄마 같은 엄마는 절대 못 될 것 같아. 엄마의 정성 때문에 우리  
자매가 이렇게 잘 큰 거겠지?

마지막으로 우리 엄마로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.

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주세요. 사랑해요.

셋째 딸 소영 올림

## • 지난 모심 사랑의 편지 당선작 (2) •

부모님께

엄마, 아빠 큰딸 정현이에요.

오랜만에 글을 통해 제 마음을 전하려고 하니 어색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. 제가 엄마, 아빠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지도 벌써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어요. 결혼식이 12월의 추운 겨울날 이었는데, 어느덧 날씨는 제법 따뜻해져 완연한 봄이 온 것 같네요.

어렸을 적, 저는 언제나 귀찮게 엄마, 아빠 꿈무늬만 쫓아다니고, 맘에 들지 않으면 생떼를 쓰던 아이였어요. 지금도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 손사래 치시는 걸 보면 정말 제가 많이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.

어느 부모님처럼 공부 잘하고 성실하게 크기를 바라셨을 텐데 유난히 길고 지독한 사춘기를 앓은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속도 많이 상하셨죠? 그리고 그런 딸이 이제 철이 들어 잘하나 싶더니 되레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니 또 얼마나 놀라셨나요? 아직도 그날의 엄마, 아빠의 놀란 표정이 떠올라요.

하지만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믿어주시고, 다독여 주시고 응원해 주셨죠. 언제나 저하고 싶은 대로 생떼만 쓰는 딸인데, 그런 딸을 엄마, 아빠는 언제나 한결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고맙고, 사랑해요.

이젠 제 걱정은 마세요. 제가 결혼했다고 바로 어른스럽게 행동하지는 못하겠지만, 오빠와 좋은 모습만 보여주도록 노력할게요. 그리고 시대어른들께 엄마, 아빠 미안한 마음 들지 않도록 제가 잘할게요.

20여 년 동안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예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. 제가 엄마, 아빠께 받은 가르침, 깨달음, 사랑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줄 거예요.

결혼하고 보니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네요. 부모님의 뒷모습. 제가 가서 한번 꼭 안아드리고 싶지만, 아직 용기가 나지 않네요. 하지만 이번 모심 행사를 통해 용기 내어 제 마음을 전해 보아요. 한없이 부족하지만 예뻐해 주고, 바른길로 향하게 잡아줘서 고마워요.

마지막으로 항상 바쁜 우리 엄마, 아빠, 모임도 줄이고 술도 줄이고, 늦둥이 아들, 딸 키우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, 늘 침 마르도록 자랑하는 사위 덕 많이 보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건강하게 있어주세요.

사랑한다는 말, 고맙다는 말, 미안하다는 말 다하려면 수천 마디의 말로도 부족하겠지만 다음 생애도 꼭 저의 엄마, 아빠가 되어주세요.  
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.

큰 딸 정현 올림